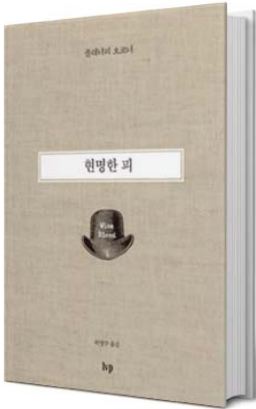


그로테스크 리얼리즘과 “죄”와 “구원”의 문제



현명한 피
플래너리 오코너 지음
허명수 옮김
IVP

들어가는 말

미국의 소설가 플래너리 오코너 (1925-1964)의 첫번째 소설 <현명한 피> (1952)는 소위 “성서시대”라 불리는 미국 남부의 2차대전후 종교적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미국 특유의 열성적인 복음주의 개신교의 근본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이다. 루프스 병으로 39세에 요절한 오코너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작가는 가톨릭의 시각으로 미국 남부 개신교의 문제점을 풍자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인간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종교적 본능이나 감수성이 어떻게 기괴하고 희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작가는 그의 2판 저자 서문(1962)에서 “이 소설은 마지못해 그리스도인이 된 한 인물에 대한 희극소설이며, 모든 훌륭한 희극소설이 그렇듯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므로 매우 진지한 소설”이라고 선언한다. 이 소설은 윌리엄 포크너나 나타나엘 웨스트 등의 소위 미국 남부 고딕 소설의 전통과 그로테스크 문학의 계보 속에 놓여있다. 미국 남부 테네시 주의 농촌지역의 가상 소도시인 툠킨햄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에서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은 모두 다 소외되고 고립된 비정상적인 광신자들이다. 이들을 통해 작가는 과연 오도된 종교적 열정과 광기 속에서 진정한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의 순회 설교자 되기

이 소설은 세계대전에 참전 중 부상을 당한 후 고향인 테네시 주로 귀환하는 주인공 헤이즐 모츠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22세의 청년 모츠는 남부의 농촌 산골에서 자라며 열성적인 순회 설교자였던 조부의 영향으로 자신도 커서 조부처럼 되고자 했다. 그러나 18세에 입대하여 4년간의 군생활에서 갖은 폭력, 부조리, 모순을 체험한 모츠는 허무주의에 빠져 반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는 길에서 받은 기독교 전단지들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그리스도 없는 교회”를 세우고 외로운 예언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물론 그는 무신론자가 된 것이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는 오히려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를 회복하려는 광적인 열정에 빠진다. 거리에서 군중들이 모이는 곳에서 진리를 설파하는 순회설교자가 된다. 그의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눈먼 자가 보지 못하고 절름발이가 걸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는 교회이다. 희비극의 주인공 모츠는 자신은 “진리”만을 말한다고 하면서 예수는 거짓말쟁이이고 타락, 구원, 심판도 없다고 설교한다.

모츠의 주위 인물들도 매우 희극적이고 기이한 인물들이다. 그의 추종자인 18세의 편집증 환자인 에녹 에머리는 박물관의 “쫄쫄한 광동이 혼혈 난장이” 미이라를 숭배한다. 모츠의 경쟁자인 복음주의 설교자 후버 쇼츠는 “새로운 예수”를 만들어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를 만든 돈 밖에 모르는 가짜 순회 설교자이다. 또 다른 거리의 선교자인 아사 호크스는 자신의 구원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거짓으로 자기 눈을 멀게 만들었다. 호크스의 음란한 어린 딸 사바스는 주인공 모츠를 노골적으로 유혹하기도 한다. 모츠는 농촌 소도시인 툠킨햄에 정착하면서 창녀 와츠 부인과 함께 지내고 그 후에는 과부인 플러드 부인의 집에 세들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모츠와 결혼해 그를 주립정신병원으로 보내고자 했으나 그의 상이 군인 연금을 탐내어 함께 살고자 하였다. 결국 모츠는 후버 쇼츠가 노상 설교를 위해 고용한 가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솔러스 레이필드를 살해하기까지 한다. 레이필드가 죽기 직전에 모츠는 그에게 “내가 못 참는 것 두 가지가 있어. 진짜가 아닌 사람과 진짜를 흉내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자기 고통을 통한 다시 태어나기

주인공 모츠는 레이필드를 살해한 후 이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어느날 모츠는 석회를 사 양동이에 물을 부어 자신의 눈을 스스로 멀게 해 “예수에 미친 맹인”이 되었다. 집주인 폴라드 부인은 “그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에 대해 눈이 멀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보지 않았다면, 왜 눈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을 구원하려고 했던 말인가”하고 기이하게 생각했다.

모츠는 1달러 짜리 지폐와 동전들을 모두 쓰레기 통에 버렸다. 그는 모래, 깨진 유리조각, 작은 돌로 바닥을 깎 신발을 신고 다녔다. 이에 놀란 폴라드 부인은 모츠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대가를 치루기 위해서요”라 대답했다. 또한 그는 잘 때 잠옷의 앞쪽 밑부분에 가시 돋친 철사를 넣었다. 폴라드 부인이 또 물었다. 그는 “내가 깨끗하지 않아서요”라 대답했다.

차가운 비가 퍼붓는 어느날 밤에 모츠는 지팡이로 더듬으며 여주인이 말리는 중에 유랑의 길을 위하여 그 집을 나왔다. 이틀 후 젊은 경찰관 두 명이 순찰 중에 건설현장 근처 배수조에 쓰러져 있는 모츠를 찾아냈다. 폴라드 부인이 이미 모츠를 월세를 떼먹고 도망간 맹인으로 신고하였다. 모츠는 젊은 경찰관들에게 “나는 가던 대로 계속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월세를 내지 않고 도주한 남자를 그대로 돌려 보낼 수는 없었다. 잔인하고 무자비한 한 경찰관이 경찰봉으로 모츠의 머리를 내리쳐 그를 죽였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츠를 집주인 여자에게 데려다주었다. 그녀는 모츠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가 더욱 더 멀리, 바늘 구멍만한 빛이 될 때까지 어둠 속으로 더욱 더 멀리 사라져 가는 것을 보았다.”

작가 오코너는 이 소설에서 고독적인 장면들과 그로테스크한 인물들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작가는 이러한 기괴한 인물들과 상황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보편적인 삶의 현실로 보고 있다. 이것들은 우리의 습관화된 인식을 깨워 우리가 처한 영혼의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장치들이다. 일종의 “낯설게하기”나 “충격요법”이다.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 미국 남부의 곡해되고 부조리한 기독교 문화의 섬뜩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은가? 영적으로 우리는 미국 남부 중심에 있다.

오코너는 한 편지에서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고통스러운 것이다”라고 언명하였다. 주인공 모츠가 소설의 말미에서 자신을 석회물로 맹인으로 만들고, 잠옷 속에 가시 달린 철사를 넣고, 신발 속에 유리조각과 자갈을 넣는 것은 깨끗하지 못한 자신을 극심한 신체적인 고통 속에 넣어 무엇인가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였다. 이 소설은 자기 눈을 찌른 오이디프스 왕의 비극까지 연상케 한다. 결국 주인공 헤이즐 모츠는 이러한 기이한 고행과 충격적인 고통을 통해 예수의 “진리”와 “구원”에 다시 다가가고자 했다. 이 소설은 기독교의 중심적 주제인 “죄”와 “구원”의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죄로 인해 부조리와 모순된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가능한 것이가?

책 속의 한 줄

“그리스도의 교회!” 헤이즐이 반복했다. “난 그리스도 없는 교회를 전합니다. 나는 맹인이 보지 못하고 절름발이가 걸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죽은 채 있는 교회의 성도이자 목사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예수의 피가 구원과 엮여있지 않음을 알려줄 겁니다.” p.121

“나는 온갖 종류의 진리에 관해 설교합니다. 여러분의 진리와 다른 누군가의 진리에 관해서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는 오직 한 가지 진리만 존재합니다. 진리가 없다는 진리죠. 모든 진리 뒤에는 아무 진리가 없다는 것이 나와 이 교회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p.185